

“이태원, 명백한 인재... 정부 무능·불찰로 인한 참사 맞다”

민주당 정책 의총... 이상민 무책임 발언 등 국민 공분에 강공모드 전환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지자체 법적 처벌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그동안 애도와 수습에 방점을 찍고 공방을 자제 해온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참사 원인 규명을 고리로 대 여 ‘강공 모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습과 위로’에 민주당의 방침이 짝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책임 규명’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진다”며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따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 유지를 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겠느냐”며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당국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서 장난하고 있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

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구정장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얘기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이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직격 발언을 신호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강공모드로 점차 선회하는 분위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논란성 발언과 안전 대책 부재 등이 ‘방아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당장 이날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부터 날 선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 “이번 참사를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이 장관은 이미 여당 내에서도 파면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었다고 운운하며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느냐”며 “국민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고 현장 인근 상인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검검이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를 벌이는 데 대해 “영웅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당 차원에서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이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 유적 발굴·관리 필요”

박수기 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광주지역에서 발견된 일제 강점기 군사 및 전쟁 시설 유적에 대한 체계적 발굴·보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은 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화정동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5·18기념공원 등에서 발굴된 지하동굴은 모두



일부군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만든 식민 지배의 피해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일제가 자행했던 물적 인적 수탈의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산발적인 발굴 조사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를 이어받아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국투어리즘 장소 활용, 훼손 방지, 등록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정비 등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해법 찾아야”

이귀순 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광주시의회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1일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른 지원주체 일원화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면서 대안학교 현장의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공약과 이정선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허울 뿐인 약



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안 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줌으로써 광주 대안교육이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주미대사 만난 이재명 “전술핵 재배치론, 무책임한 얘기”

골드버그 대사 접견...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여권 일각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언급되는 것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역량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

체제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도 전달하며 미국의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양국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IRA에 대해 우리 기업과 산업계가 갖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포괄적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 의회 양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며 “양국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에서 양당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IRA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을 통해 동맹에 걸맞은 방식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언급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미국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지 않느냐”며 “한미에서 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